

# 방사선과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Majoring Radiology —

상계백병원 영상의학과

김형태

### — 국문초록 —

복잡한 사회의 정보와 혼란 속에 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자기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심리, 성격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방사선과 대학생들을 편의추출하여 방사선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또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방사선과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환경과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일반특성에서는 연령은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성별과 성적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건강은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타인감성이해가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단어:** 방사선과 대학생, 감성지능, 자아존중감

###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은 청소년기에 더 많은 교육을 요구하였고, 교육기간은 더 많은 기술과 지식, 훈련을 요구하게 되어 청소년기를 더욱 길게 만들었다. 청소년기의 장기화로 인한 발달과업은 성인으로 가기 위해 성공적으로 성취하여야 할 과업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의 정보와 혼란 속에 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자기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심리, 성격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

(Self-Esteem)이다. 그러나 2006년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특히, 자신감 비교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및 평가 위주의 사회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교우관계 역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성취,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지닐 수 있는 리더십과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있고 유능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 친밀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생산적 수행능력 등이 높을 뿐 아니라 분노도 잘 조절하며, 또 반사회적 행동의 경향도 낮은 편이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만성적으로 낮은 사람은 실패

\*접수일(2011년 7월 31일), 심사일(2011년 8월 17일), 확정일(2011년 9월 3일)

교신저자: 김형태, (139-707) 서울시 노원구 상계6.7동 761-1  
상계백병원 영상의학과  
C.P. : 010-3608-3272  
E-mail : khtjmm@naver.com

를 두려워 하며 의존적이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 지 못하며, 또 자기경멸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sup>3)</sup>.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해 나가며 진취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sup>4,5)</sup>. 또한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회피행동을 많이 보이는 대학생들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들 보다 대인관계에서 불편감과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이와 더불어 1990년대 들어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보다 관심이 높아지는 감성지능(EQ; Emotion Quotient)은 자신의 감정,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수용력으로 정의하였으며<sup>8)</sup>,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하는 것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성과이론의 관점에서 모델을 고안하여 감성지능이 일과 조직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직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세일이나 리더십 등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존슨 앤 존슨 개인용품 그룹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걸친 1,4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조사에서 리더십의 역량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평균적인 사람을 비교 연구하였는데<sup>7)</sup>, 감성 능력과 훌륭한 업적 사이에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져 감성이 리더십 및 업무성적을 구분하여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였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학습 및 삶의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건강한 자아존중감(healthy self-esteem)은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을 연계시킨 연구가 없었으며,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연구는 있었으나 방사선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며, 한지역의 대학생이나, 학과별로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을 연구하거나 초기 청소년,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방사선과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방사선과 대학생들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아존중감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감성지능과 자

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방사선과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방사선과 대학생의 일반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과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 II.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방사선과 대학교를 각 지역별로 한 개의 학교씩 편의 추출하여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 한분께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각 학교당 60부씩 배부하였다. 조사한 대학의 학제는 한지역만 4년제 대학이고, 나머지 지역은 3년제 대학인데, 4년제 대학에서도 4학년은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4일간 하였다. 총 30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284부가 회수되어 약 94.7%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기록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제외한 276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Coopersmith<sup>10)</sup>의 연구를 참조하여 이미경이 개발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의 척도는 기업 조직이나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 용이하고 믿음만한 Wong과 Law<sup>11)</sup>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변인 5문항, 학교관련 변인 6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나이, 종교, 건강상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관련 변인은 학년, 성적, 과 적성, 과 선택 후 회여부, 동아리 여부, 대학생 생활의 중점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감성지능, 자아존중감의 구성개념들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정하고, 각 개념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타당성의 검정은 각 개념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 문항들을 포함하여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6을 기준으로 하였다.

감성지능은 감성인식,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의 4개 하부개념을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감성인식은 0.805, 타인감성이해는 0.715, 감성조절은 0.726, 감성활용은 0.708로 모두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의 4개 하부개념을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0.732, 사회에서 자아존중감은 0.895,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은 0.89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0.286으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였다.

Table 1. Measuring instrument

개념 변수	하부개념	측도수	참고문헌
자아 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6	Coopersmith(1984) 이미경(2009)
	사회적 자아존중감	9	
	가정의 자아존중감	9	
	학교의 자아존중감	8	
감성 지능	감성인식	4	Wong과 Law(2002)
	타인감성이해	4	
	감성조절	4	
	감성활용	4	

### III. 연구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59.4% 여자가 40.6%이고, 연령은 24세 이하가 75.8%이고 25세 이상이 24.2%였다. 종교는 무교가 51.1%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많았

으며, 재학 학년은 3학년이 48.2%, 2학년이 22.5%, 1학년이 29.3% 순이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 39.9%, 중하위권이 39.1%, 상위권이 12.3%, 하위권이 8.7%였고, 방사선과 적성은 잘못음이 58.3%, 잘안맞음이 23.2%, 매우 잘못음이 10.5%, 매우 안맞음이 8.0%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수 (명)	백분율 (%)
성별	남	164	59.4
	여	112	40.6
연령	20세 이하	75	27.2
	21-22세	64	23.2
	23-24세	70	25.4
	25-26세	51	18.5
	27세 이상	16	5.8
종교	기독교	81	29.3
	천주교	22	8.0
	불교	32	11.6
	무교	141	51.1
학년	1학년	81	29.3
	2학년	62	22.5
	3학년	133	48.2
성적	상위권	34	12.3
	중상위권	110	39.9
	중하위권	108	39.1
	하위권	24	8.7
방사선과 적성	매우 잘못음	29	10.5
	잘못음	161	58.3
	잘안맞음	64	23.2
	매우 안맞음	22	8.0
과선택 후회여부	유	136	49.3
	무	140	50.7
건강상태	매우건강	107	38.8
	건강	138	50.0
	약한편	24	8.7
	질병(장애)	7	2.5
동아리활동 여부	유	57	20.7
	무	219	79.4
대학생활 주요관심사	학업	57	20.7
	대인관계	88	31.9
	취업준비	110	39.9
	이성교제	9	3.3
	기타	12	4.3
지역	경기	56	20.3
	강원	59	21.4
	충청	55	19.9
	경상	57	20.7
	전라	49	17.8
	합계	276	100

1.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특성의 분산분석 및 t-test

일반적 특성을 측정한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명목변수에 대한 자아존중감 분석은 분산분석과 T-test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서열변수에 대한 자아존중감 분석은 감성지능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별로 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하여 표 3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동아리활동 유무였다.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아리를 활동하는 것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과선택 후회여부와 동아리활동 유무였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과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높게 나왔고,

동아리 활동을 할수록 높게 나왔다.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과선택 후회 여부, 동아리활동 유무였다.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은 과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높게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을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과의 상관관계

변수의 특성에 따라 방사선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서열변수와 감성지능(감성인식, 감성조절,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이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적 특성 중 나이, 성적, 적성, 건강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적 특성 중 성적, 적성, 건강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는 성적, 적성, 건강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감성지능은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성별	남	2.82±.47	6.011*	2.76±.55	1.525	3.01±.53	0.376
	여	2.68±.43		2.84±.43		2.97±.46	
종교	기독교	2.87±.46	1.605	2.85±.51	1.264	3.06±.51	1.187
	천주교	2.67±.63		2.60±.54		2.95±.64	
	불교	2.70±.37		2.84±.36		2.84±.36	
	무교	2.74±.44		2.77±.52		2.77±.52	
과선택 후회	유	2.75±.45	0.554	2.73±.51	4.427*	2.92±.49	6.779*
	무	2.79±.46		2.85±.499		3.08±.51	
동아리	유	2.82±.43	8.222***	2.86±.45	3.972*	3.02±.40	7.237***
	무	2.76±.45		2.78±.51		3.00±.52	
관심사	학업	2.80±.49	0.708	2.87±.47	0.652	3.00±.48	0.862
	대인관계	2.74±.48		2.81±.56		3.01±.57	
	취업준비	2.79±.40		2.75±.42		2.99±.43	
	이성교제	2.77±.53		2.73±.56		3.11±.47	
	기타	2.58±.59		2.72±.50		2.87±.80	
지역	서울경기	2.87±.46	1.061	2.75±.49	0.262	3.00±.48	0.353
	강원	2.73±.41		2.76±.48		3.06±.53	
	충청	2.70±.50		2.84±.54		2.96±.47	
	경상	2.76±.45		2.80±.51		2.97±.52	
	전라	2.77±.46		2.81±.53		2.99±.07	

### 3. 방사선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요인

방사선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분산 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던 명목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던 서열변수 중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연령, 성적, 적성, 과선택 후회여부, 건강, 동아리활동 과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요인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명목변수인 성별, 과선택 후회여부, 동아리 활동은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이들 변수에 48.1%,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이들 변수에 44.7%,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이들 변수에 33.1%를 설명하였다. 일반특성에서는 연령은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성별과 성적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건강은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타인감성이해가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general characteries,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steem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			
성별	-0.024	0.141*	-0.020
연령	2.264*	0.036	-0.026
성적	-0.403	-0.120*	-0.049
적성	0.013	0.100	-0.085
과선택후회	-1.128	0.039	0.017
건강	-0.170***	-0.199***	-0.151*
동아리 활동	-0.015	-0.034	0.015
감성지능			
감성인식	0.278***	0.122*	0.120*
감성조절	0.154**	0.186***	0.144*
타인감성이해	-0.008	0.145*	0.136*
감성활용	0.395***	0.371***	0.302***
Adjusted R2	0.481	0.447	0.331
F Value	24.120***	21.161***	13.33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general characteri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나이	학년	성적	적성	건강	감성 조절	타인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 인식	전반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감
학년	.685 ***										
성적	-.041	-.110									
적성	-.007	.104	.375 ***								
건강	.002	.095	.152 *	.339 ***							
감성 조절	.032	-.055	-.149 *	-.215 ***	-.197 **						
타인감성이해	-.133 *	-.086	-.018	-.061	-.067	.158 **					
감성 활용	.058	-.019	-.218 ***	-.304 ***	-.315 ***	.362 ***	.247 ***				
감성 인식	-.035	-.039	-.054	-.124 *	-.200 **	.333 ***	.416 ***	.361 ***			
전반적 자존감	.152 *	.059	-.151 *	-.209 ***	-.364 ***	.426 ***	.232 ***	.606 ***	.506 ***		
사회적 자존감	-.024	-.028	-.245 ***	-.202 **	-.361 ***	.392 ***	.340 ***	.583 ***	.393 ***	.567 ***	
가정에서 자존감	-.017	-.058	-.218 ***	-.279 ***	-.340 ***	.376 ***	.307 ***	.517 ***	.387 ***	.521 ***	.539 ***

\*: p < 0.05, \*\*: p < 0.01, \*\*\*: p < 0.001

#### IV. 결론 및 제언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성취,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지닐 수 있는 리더십과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사선과 대학생을 상대로 개인의 성품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타인감성 이해가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성지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별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연령은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학교 성적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건강은 모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에 성별로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박지연<sup>2)</sup>의 연구와 일치한다.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연령은 인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없지만 학교성적을 높이거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학교 성적과 전공과목의 이해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경<sup>1)</sup>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기에 감성지능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 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과 선택을 후회한 학생과 후회하지 않은 학생이 49.3%와 50.7%로 거의 반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비전이 있고, 나아가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 줌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것을 줄여 자아존중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이미경<sup>1)</sup>이 제안한 대학내 학생지원강화, 지역사회 연계강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과목 중 단순 체육이 아닌 건강과 레져생활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을 증설하여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즐거움을 주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 내에 감성지능을 올릴 수 있는 교양과목을 증설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산학협동을 제안한다. 산학이 협동하여 학생자신

의 미래를 바라보고 과선택의 후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최신 장비를 견학한다던지, 최신검사의 흐름을 인지시킨다던지, 학회에 참석하여 임상에 먼저 진출한 선임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사선과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형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연구방법 및 분석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방사선과 학제가 3년제와 4년제가 병존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둘째, 조사가 용이한 대학을 선정하여 각 학교당 6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반화를 위한 임의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는 3년제와 4년제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과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1. 이미경: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박지연: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3. Rosenberg, M: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 1981.
4. 임진영, 장재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6, 379-399, 2003.
5. 서미자: 부모와의 관계, 대인관계 및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 심미경: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지지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2005.
7. Cavallo K, Brienza D. Emotional competence and leadership excellence at Johnson & Johnson, 2002.
8. Goleman D.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 2000.
9. 서하진, 김정옥: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

- 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009.
10. Coopersmith, S, R: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4.
11. Wong C, Law KS.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76(6), 2002.

---

• Abstract

---

##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Majoring Radiology

Hyeong-Tae Kim

*Sanggye Paik Hospital, Radiology*

In informational confusion of complicated society, self-esteem is considered as important psychological and temperamental factors for self-recognition and self-realization of youths. In this study, we found factors that affect self-esteem by investigat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ollege student majoring in Radiological Sc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ge affects overall self-esteem, sex and school record affect a social self-esteem, and health affects self-esteem within the family as well as overall and social self-esteem.

---

**Key Words :** college student majoring radiolog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